

광주U대회 경기장 오늘 결정 주민반발 잠재울 묘책 나올까

수영장-남부대, 체육관-광주여대, 양궁장-조선대, 근발위 조건부 의결

광주시 균형발전위원회가 14일 2015년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수영장 등 시설 경기장 입지선정과 관련해 심의를 갖고 애초 용역 결과대로 '수영장-남부대, 체육관-광주여대, 양궁장-조선대 안'을 1순위로 조건부 의결,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5일 광주U대회 경기장 입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지만 남구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대학 내 입지에 따른 중앙부처 승인절차 등이 남아 있어 여전히 걸림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14일 오후 제3차 심의를 갖고 용역결과와 동일한 '시설경기장 입지선정 안'을 의결했다. 균형위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했던 시민의견을 반영해 균형발전 및 사후관리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점수를 재산정했지만 그 결과는 동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균발위는 그러나 대학 부지에 이들 시설이 들어설 경우 향후 운영·관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민이용 편의성 향

상 방안 등이 전제가 돼야하며, 시설로 인한 과도한 대학 부담 자체 등 교육과학기술부 지적사항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공청회 당시 제기했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소지역주의가 아닌 대응적 차원, 균형발전과 사후관리 가치 부여, 일반인에 대한 개방 여부 등을 감안, 평가점수를 재산정한 결과 이 같이 판단했다"며 "다소 이견은 있었으나 최종 입지를 광주시장에게 건의했기 때문에 15일 광주시가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립대학들이 학교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시설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남부대는 수영장 부지로 5만㎡, 광주여대는 다목적체육관 부지로 5만5000㎡, 조선대는 양궁장 부지로 3만6000㎡를 무상 제공하게 되며, 운영·관리비 일체를 부담하겠다고 광주시에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도시균형발전위원회 한 위원은 "이들 대학들이 일단 대학의 인지도 향상, 대표 시설 조성 등을 위해 이들 시설들을 유치했으나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만큼 완벽하게 운영해나갈 지가 미지수"라며 "광주시가 정식 협약을 맺을 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와도 조율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일단 체육시설이 부족한 남구에 복합스포츠허브와 종합운동장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반발 여론이 다소 수그러들었다고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15일 최종 발표가 있었으나 광주U대회 신규시설 입지를 놓고 벌어진 갈등에 대해 중앙부처까지 인지하게 돼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광주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앞으로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 지구인 문화전당권의 권역을 확대, '아시아인권문화권'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오는 2014년 말 완공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는 현재 28.3%가 진척된 상태며, 예산이 예정대로 지원되면 내년엔 58%까지 공정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분석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표문화예술산업특구 우선 추진

■ 표문화도시 7대 문화권 조정 용역보고

문화전당권→인권문화권 등으로 명칭 변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설정된 7대 문화권 중 문화전당권이 아시아인권문화권, 교육문화권이 미래교육문화권, 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권이 생태환경보존권으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또 7대 문화권을 집중형, 연계형, 벨트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23대 사업을 선정,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14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7대 문화권 조정 등 세부실천계획 수립 2차 용역보고서'에서 "아시아를 통해 세계를 비추는 빛"이란 비전과 세계문화교류도시, 미래문화경계도시, 지속가능예술도시, 인권문화창조도시란 정책목표에 따라 7대 문화권 사업을 3가지 유형의 입체적 권역으로 재정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단은 ▲아시아인권문화권(옛 전남도청 일대) ▲아시아문화교류권(양림동, 사직공원, 광주공원)을 묶어 집중적으로 핵심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시아신과학권(첨단, 하남, 평동, 송암, 장성) ▲아시아전통문화권(칠석동, 대촌동, 효천역세권, 신창동) ▲미래교육문화권(마복동)을 묶어 융복합 문화콘텐츠를 육성, 자치

구별 특성화 교육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생태환경보존권(무등산, 영산강, 광주천) ▲시각미디어문화권(외재 예술인촌, 문화전당,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 중외공원)은 지역 특성에 맞게 벨트를 형성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학협력단은 7대 문화권의 신규사업으로 아시아인권문화권의 경우 아시아 인권로드 조성, 아시아 인권 창조공간 조성, 아시아 인권의 빛 축제 개발을 제안했다. 아시아신과학권은 광아트 산업 특화지구 조성, 창조문화공간 프로젝트 그리고 생태환경보존권에서는 창조적 도시공원 프로젝트, 아시아 예술 텃밭 조성사업, 시각미디어문화권에서는 아시아 아트로드 구축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예술창작 전문인력 지원센터 구축, 아시아문화예술기금 조성, 5월 문화 콘텐츠 개발, 문화콘텐츠 컨트론타워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광주교도소 내 인권호텔 조성 및 유니버설 관광디자인 도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통합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의 신규사업도 포함시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을 위해 광주시 시민문화 진흥·민자유치·문

화산업 관련 출연출자 등을, 국가가 문화전당 건립운영·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투자조합 결성 지원 등을 맡고 문화사업 기반조성과 아시아문화교류 등은 공동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오는 2012년까지 기반조성을 끝내고 2013~2015년 이들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 2016년부터는 성숙 및 정책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판단이다. 또

전체 중요 23개 사업 중 1순위로 아시아문화예술산업 특화지구 조성 등 10개 사업을 선정하고, 2순위로 아시아아트로드 구축사업 등 10개 사업, 3순위로 창조문화공간 프로젝트 등을 지정했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전남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최종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발주하는 용역 시스템 바뀌라”

姜시장, 간부회의서 주문

강운태 광주시장이 광주시가 연례적으로 발주하고 있는 각종 용역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지시하면서 광주시의 용역 발주 시스템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강 시장은 14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교통수요조사용역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하도록 돼 있는 용역은 법에 따라 하되 작년, 재작년에 실시한 기존 용역에 인구, 차량 등 바뀐 데이터를 입력하면 가능하다”며 “이러한 용역들을 굳이 발주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용역심사위원회를 보강해서 꼭 필요한 용역인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이면 기존 용역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히 광주발전연구원은 존립 근거 자체가 광주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는 기관인 만큼 공직자와 함께 용역 관행 개선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이날 레저세를 인하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 3D 융합산업 선점 방안 모색 등도

주문했다.

강 시장은 “레저세를 낮추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세가 98억원 감소하게 된다”며 “이런 일은 절대 불가하며 비슷한 여건의 10개 시·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3D 융복합산업이 광주의 핵심적 미래 아젠다로 설정된 이상 3D산업의 현주소를 빨리 분석해서 관련 협회, 단체, 기관이 광주에서 모여 3D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 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FAX: (062)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국내여행

오렌지호텔&스타크루즈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3일!!!

선박 **목포-제주도** ₩129,000원~
장흥-제주도 ₩159,000원~
불포함:기사와가이드팁(₩10,000원), 수송비(광주-목포&장흥)

항공 **광주-제주도** ₩259,000원~
불포함:기사와가이드팁(₩10,000원)
*추천: 아트랜드, 퍼시픽랜드

광주에서 출발하는 올롱도 1박2일 ₩287,000원~
2박3일 ₩319,000원~

목포에서 출발하는 올롱도 1박2일 ₩135,000원~

국내여행보다 저렴한 일본여행 지금이 바로 **일본 여행 적기입니다!**

4일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유후다케 산행 ₩399,000
▶출발일: 10/20 (출발확정) (광주·출·도착, ALL 포함~)

4일 구중산 빌라형통나무콘도로 떠나는 가을 단풍 여행 ₩299,000
▶출발일: 10/27 (부산·출·도착)

일본 가을 광양해리로 떠나는 북큐슈 4일 아미구치,미야지마 떠나는 큐슈 ₩199,000원
▶출발일:매주 일, 수 출발
4일 (실속) 뱃부 온천 ₩199,000원
▶출발일:매주 일, 수 출발

가을 카멜리아로 떠나는 일본온천 즐기(현지2박)~!! 4일 구중산 빌라형통나무콘도 ₩299,000원
▶출발일: 10/27 (부산·출·도착)
4일 빌라형통나무콘도+스키유전통료칸 온천 ₩399,000원
▶출발일: 10/27,12 (부산·출·도착)
4일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유후다케 산행 ₩399,000원
▶출발일: 10/20 (출발확정) (광주·출·도착, ALL 포함~)
4일 일본 자유투어 제대로 즐기!! 99,000원~ (선박, 호텔1박)
▶문의바람

중국 무안출발 가을산풍출시 (山...山...山... 씨리즈) 三淸山 - 트레킹의 명산 太行山 - 동양의그랜드캐년 白石山 - 2,000m 경사의 공중초원과 빼어난 협곡
5일 상해,삼청산,황산,황주 (매주 목/토 출발) ₩807,000원~
4일 북경,백석산,공중초원,비호곡 (매주 화 출발) ₩849,000원~
4일 북경, 평요, 면산 (매주 화 출발) ₩949,000원~
5일 북경, 평요, 면산 (매주 금 출발) ₩1,149,000원~
5일 북경, 대동, 평요, 면산 (매주 금 출발) ₩1,039,000원~
불포함사항: 광주-무안수송비,기사와가이드팁
출발확정 5일 상해/장가계(천문산)주거 ₩1,150,000원~
▶출발일: 10/15, 29 불포함사항: 광주-무안수송비

동남아 6일 베트남&캄보디아 ₩879,000원~
불포함사항:유류할증료, 기사&가이드 팁 (\$30)

미주 5일 하와이 오아후 [일] ₩1,140,000원~ [준특] ₩1,250,000원~ [특] ₩1,390,000원~
불포함:유류할증료(\$280),가이드&기사팁, 식사(중식-2회,석식-1회), 메니덤

유럽 8일 서유럽3국(프,스,이) ₩1,690,000원~
10일 서유럽5국(영,프,러우) ₩2,090,000원~
불포함:유류할증료,가이드&기사팁, 메니덤

골프 오렌지호텔과 함께가는 사이프러스 CC 1박2일 36홀 ₩199,000원~ 18홀 ₩169,000원~
불포함사항:전동카트, 캐디팁, 식사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2억 원 영수증 발급 / 여행권 계약일
*교통비: 항공 운임, 전월차스/전차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사보험 가입(해외여행:1억원, 국내여행:5천만원), 관광진흥법규,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항공 운임,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